

올 설에도 영락공원 교통지옥 걱정된다

관통 도로 20년째 미개설 ... 매년 극심한 혼잡 되풀이

1.1km 개통 안돼 5~10분 걸릴 거리 2~3시간 소요

박모(49·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지난 주말 서둘러 성묘를 다녀왔다. 지난해 설날 가족들과 함께 부친의 산소가 있는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을 찾았다가 교통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2시간이면 넉넉히 성묘를 다녀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성묘객들의 차량으로 영락공원 내에서만 3시간을 허비했다. 그는 “도로 앞뒤로 차량이 꽉꽉 막혀 불과 5분이면 걸 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의 대표적인 묘역인 광주영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가 20년째 개설되지 않고 있어 매년 명절 교통혼잡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설 연휴기간(7~10일)에도 곳곳에 들어찬 차량으로 교통지옥 현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락공원로 전체 3.57km 구간 중 효령동 효령삼거리에서 진입해 영락공원까지 이어지는 2.47km 구간을 제외한 1.1km가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성묘를 마치고 차량을 돌려 진입했던 도로로 되돌아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명절 연휴기간이면 왕복 4차선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과 진입 차량, U턴 해서 되돌아 나오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광주시가 지난해 분석한 결과 평상시 5~10분 소요되는 2.47km 구간이 명절 연휴기간에는 2~3시간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락공원 주변에는 망월공원묘지와 국립5·18민주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광주시가 파악한 명절 연휴기간 성묘객은 영락공원 6만3000여명, 망월공원묘지 5만여명, 국립5·18민주묘지 7000여명 등 모두 12만명이다. 특히 지난해 설 연휴기간에는 22만90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았고, 설 당일에만 11만5000여명이 몰리는 등 해마다 방문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개설도로 1.1km 구간이 개설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개설도로가 영락공원을 관통, 북구 장동동 장동마을을 지나서까지 이어져 U턴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

■영락공원 미개설도로 구간



이 구간은 1997년 도로로 결정고사된 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다.

광주시는 현재까지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개설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U턴 현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말께 국도 29호선 동동고개에서 일곡사거리까지 연결되는 광주북부순환도로 2공구가 개통하면 이 도로를 영락공원로와 연결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아직까지 미개설도로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도로 개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포트홀 긴급 보수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도로 긴급복구팀 직원들이 1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 도로에서 폭설로 인해 생긴 '도르래' 포트홀을 매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설 연휴 빈집털이 낮 12시~오후 6시 빈발

전남경찰청 2년간 절도범죄 분석

설 명절을 전후한 절도 범죄는 빈집털이가 가장 많고, 시간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에 문 단속이 되지 않은 곳이 주요 범죄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이 2014~2015년 설 전후 3주간 절도 범죄를 분석한 결과, 빈집털이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오후 시간대에 발생했다.

지난해 설날 전·후 절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6.3%(411건→385건) 감소했으며, 1일 평균 발생건수도 17.5건으로 평소(21.4건) 대비 18.2% 줄었다.

하지만, 절도범죄 중 빈집 침입 절도는 전년 동기 대비 48%(46건→68건) 급증했다. 1일 평균 3.1건으로 평소 2.8건보다 10.7% 증가했다. 전체 절도범죄 중 빈집털이 비중도 6.4%(11.2%→17.6%) 늘어났다.

설을 전후해 전체 절도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절도 수법 중 빈집털이는 증가한 것이다. 최근 2년간 절도 범죄 수법에서 빈집털이가 14.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들치기(10.7%), 상점털이(7.2%) 순이었다. 장소는 노상(18.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단독주택(13.3%)·유흥전점업소(5.2%)·상점(5.0%)·아파트(3.8%) 순이었다.

교통사고 뺑소니 20대女 영장

환경미화원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청은 1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정모(여·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9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 빛고을대로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말로비 승용차로 환경미화원 A(51)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날 출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서 상습 행패 40대 "술마시고 한 일이라 생각 안나"

○주민들의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동네 식당을 찾아가 육식을 하며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구속될 처지.

○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나모(49)씨는 지난달 27일 밤 10시에 남구 주월동 A(68)씨의 식당에서 노인들이 화투를 치는 것을 보고서 “도박죄로 신고



지난 1979년 들불야학(노동야학) 체육대회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는 김영철(맨 오른쪽) 열사의 모습.

5·18 시민군 기획실장·광주 빈민운동 개척자 김영철 열사 유고집 나왔다

윤상원 열사 최후 순간 증언
육필 항쟁 기록 등 담겨 관심

마지막 시민군이자 광주의 빈민운동 개척자로 알려진 김영철 열사의 일대기를 다룬 유고집이 나왔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며 들불야학의 동지이자 시민군 대변인인 윤상원 열사의 최후를 목격하고 기록한 열사가 남긴 육필 항쟁 기록도 포함돼 관심을 끈다.

5·18기념재단과 (사)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최근 5·18 당시 시민군 기획실장을 맡아 항쟁 마지막 계엄군에 체포된 김영철 열사의 유고집을 펴냈다. 1일 밝혔다. 열사는 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계엄군에 체포된 이후 고문과 자살 시도로 얻은 후유증으로 16년간 정신 질환을 앓다가 지난 1998년 숨을 거뒀다.

‘못다 이룬 공동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말 간행된 유고집에는 전용호 작가가 쓴 평전과 함께 육필 자서전, 일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의사 소견서 등이 망라돼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열사가 목격한 윤상원 열사의 최후 순간에 관한 기록과 항쟁에 가담하기 전 열사가 개척하다시피 한 광주 빈민운동에 관한 대목이다.

열사가 고문과 자살시도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시절 쓴 자서전에 따르면, 윤상원 열사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이후 계엄군의 총소리가 요란해지고 사고

탄(최루탄)이 쏟아지자 2층에 함께 있던 김영철 열사에게 “형님 함께 빠져나갑시다”고 탈출을 권했다고 한다. 그런 것도 잠시 갑자기 뒤쪽 창문 쪽에서 드르륵 하며 M16연발 소총소리가 들려오더니 윤상원이 아이구 하며 오른쪽 아랫배를 움켜잡았다. 총알이 등에서 바로 관통한 것이다. 이후 사과탄 몇 개가 터지면서 건물 커튼에 불이 붙었고 그것이 윤상원을 덮쳐 화상 흔적이 남았다는 것이다.

김영철, 윤상원, 박기순, 박관동 등 항쟁지도부가 1970년대 후반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만나 교류한 것도 흥미롭다. 광천시민아파트는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과 부랑자들이 모여 살던 천막과 판잣집을 부수고 광주시가 건설한 아파트인데다 입주자들이 돈을 완불할 여력도 되지 않아 이름난 아파트지화장 등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영철 열사는 5·18이 일어나기 전까지 광천 시민아파트에 살며 주민 소득수준, 문맹 여부, 직업, 채무관계, 종교 등을 조사하고 운동체 조직을 꾸려 주거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운동을 진행했다. 입주자 자녀를 위한 주말학교, 외벽 페인트 공사, 아파트 주변 청소, 하수도 공사, 주민 잔치 행사 개최 등 주민생활 여건을 끌어올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5·18 기념재단 안길정 박사는 “유고집 간행은 김영철 열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윤상원 열사의 최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3>신축 상가원룸 매매</h3> <p><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p> <h4>(4층) 신축원룸</h4> <p>(4면 울대리석 시공)</p> <p>1층 (상가 1칸) 2층~3층 (원룸 10개) 4층 (주택)</p> <p>☆ 보 5,000만 - 월 480만 ☆</p> <p>매가 6억 7천만 (음 1억2천)</p> <p>☆ 원룸 추천 ☆</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모아 A,P,T 코너지리) (1층상가, 1개,2개 분할가능) (4층 주택) (2~3층-원룸 6개, 투룸 2개) 보 4천만 월수익 480만 (음 1억5천만) → 매가 6억8천</p> <p>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p> <p>③ 용봉지구 원룸 총룸-20개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h3>1층 상가 매매</h3> <p><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p> <h4>첨단 부영1차 A,P,T.건너편</h4> <p>(광산 KT지사 부근)</p> <p>※ 미용실,식당,프랜차이즈 추천</p> <p>(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p> <p>(보 - 800만, 월 80만)</p> <p>매가 1억5천만</p> <p>☆ 광산 KT지사 부근 ☆</p> <p>① 전남 곡성 전원주택 (토 80평, 건30평) 입목류, 섬진강 부근 → 매가 6억7천</p> <p>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오피수리 (음5천) (보천,월80만) → 매가 7억8천만</p> <p>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음5천) (보5백,월45만) → 매가 11억</p>	<h3>법률경매</h3> <p>(주)대신경매</p> <p>(특수물건 추천)</p> <p>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룸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아울러스 남측 근처,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p> <p>2. 동구 수기동 (토 130평, 건 320평) (1층,생활시설,창고-2층~3층,소매점-4층~5층,사무실) 감정가 10억 → 최저가 4억8천만</p> <p>3.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건118평) 북구 두암동 우체국 옆, 2차선 도로 접 ☆ 1층 점포,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 5천 → 최저가 2억 5천만</p> <p>4. 동구 학동 (토 114평, 건 60평) ※학동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 약 2미터 도로 접으로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1억9천</p> <p>☆ 직원 구함 ☆</p> <p>경매 컨설팅, 부동산 배우실분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분 모집 합니다.</p>	<h3>경매교육</h3> <p>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초교육부터 실전까지</p> <p>(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p>① 서구 금호동 (토 63평, 건 111평) (1층~2층, 사무실및 창고) (3층 - 투룸) 감정가 3억3천 → 최저가 2억3천</p> <p>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p> <p>① 서구 용암동 (토 74평,건131평) 용암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1층-룸 5개, 2층 - 룸 5개, 3층 - 룸 2개)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p> <p>② 광산구 월계동 (토 86평,건 161평) 한국방송통신대 북서측 인근, 8m도로 접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1억8천7백</p> <p>③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 174평,건 424평) 총 5층, 10m도로 접, 양동시장 부근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6천</p> <p>④ 서구 쌍촌동 (토 90평, 건 364평) 1층~5층 총룸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 12억 → 최저가 6억8천</p> <p>⑤ 북구 중흥동 (토 81평,건 298평) 총 5층, 중흥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약8m 도로접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7천</p>
010-6670-9800	010-73684-7800	010-6834-4800	010-6832-9700